

농촌 어르신 50% 이상 '문자해독 못해'

농촌경제연구원, 농촌 노인 문해력 제고 방안 연구 통해 확인

“삶의 질 향상 위해 농정 당국 문해교육 연계사업 시행 절실”

우리나라 농촌 노인의 절반 이상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읽기·쓰기·셈하기·문자해독 능력 등을 일컫는 '문해교육(文解教育)'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세계 최고의 교육열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지만 농촌지역의 경우 어르신 절반 이상이 문자해독 능력이 없어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KREI 마상진 연구위원 등이 추진한 '농촌 노인의 문해력 제고 방안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

마 연구위원 등은 “농촌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문해교육이 시급하다”면서 “정부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농업·농촌 특성에 맞는 문해 교재와 문해 교사 육성·조직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촌 노인 중 문해교육이 필요한 노인은 약 58%로, 기초 문해교육이 필요한 40만명을 포함해 약 100만여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농촌 마을당 29명, 읍·면당 75.4명(기초 문해교육 28.2명 포함) 수준이다. 농촌 지역 중에서도 읍보다는 면 지역이, 성별로는 여성 노인층에 대한 교육 필요성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이러한 문해력 저하로 농촌 노인 중 3분의 1 이상이 관공서, 은행, 우체국 등에서 서류 작성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병원 처방전을 이해하지 못

하거나, 공공 서비스를 이용시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문해 능력을 갖춘 농촌 노인의 경우 사회참여 활동을 비롯해 공공서비스 이용률이 높았고 건강과 삶의 질 측면에서도 더 나은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문해가 가능한 노인은 비문해 노인보다 정치 참여에 관심을 가질 확률은 1.9배, 농업·농촌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은 2.8배 높았다.

문해 노인은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약 4.4배까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5배가량 높았다.

하지만 농촌 노인 비문해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부족한 가운데 국가 정책도 농촌 문해와

관련한 정부의 비전이나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목표도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6년부터 교육 당국이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역량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울러 농촌에 특화된 사업은 '1면 1문해학교' 등 시범 사업 정도에 불과했고, 교육당국과 농정당국의 협력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KREI 마상진 연구위원은 “농촌 노인의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기본 방향으로 '문해에 대한 중앙·지방정부의 책무성 강화'를 일선위로 꼽았다.

이어 '문자해독 교육에서 벗어난 생애 역량 개발 연계', '농촌 노인 특성에 맞는 비문해 해소 방안 모색' 등을 제시했다.

그는 “비문해로 인해 그동안 누리지 못한 개인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국가 책임지는 문해교육을 통해 농촌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남규 기자

동구, 2020년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모집

광주 동구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0년 신재생에너지보급(융·복합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할 기업을 2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보급(융·복합지원)사업은 에너지저장기반 구축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공공시설·주택·상가 등에 태양광·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동구는 올해 초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8개 자연마을이 포함된 지원지역을 대상으로 '친환경 에너지저장기반 조성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2월달까지 15회에 걸쳐 주민설명회 개최, 설치희망가구 접수 등을 마쳤다. 예상 사업비는 20여억 원 규모다.

서구,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의견접수

광주 서구는 4월 4일까지 '2019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을 접수받는다.

관내 열람대상 개별주택은 14,078호, 공동주택은 89,465호이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서구청 세무과 주택평가팀에 방문 또는 전화(☎360-7468)로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부동산거래알리미(www.re.alpic.kr)에서 인터넷 열람도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가격에 대해서는 표준주택 및 인근주택 가격과의 균형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개별통지하게 된다.

남구, 원어민과 화상영어 수강료 80% 지원

광주 남구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장애인 가정 등 사회적 배려 대상인 취약계층 가구의 사교육비 절감과 자녀의 영어 소통능력 향상을 위해 원어민 화상 영어학습 지원 사업을 펼친다.

14일 남구에 따르면 원어민 화상 영어학습 지원 사업은 관내 취약계층 세대의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가정 형편 등의 사유로 학원에 다니기 어려운 아이들에게 영어학습의 기회를 제공, 이들이 글로벌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남구는 영어학습 지원 신청을 할 경우 학생들에게 월 수강료(2만5,000원)의 80%인 2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한달에 5,000원만 부담하면 원어민 강사와 얼굴을 맞대며 영어 대화를 통해 언어 소통능력을 키울 수 있다.

북구, 실무 중심 정책자문단 본격 운영

광주 북구가 다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자문단을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나섰다.

북구는 "14일 북구청 2층 상황실에서 북구의 주요정책과 현안사항 등에 대한 자문을 통해 원활한 구정을 운영하기 위한 '정책자문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라고 14일 밝혔다.

'정책자문단'은 효율적인 구정 운영을 위해 김재기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산·학·연·관 분야별 총 21명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자치행정, 복지환경, 경제문화, 안전도시 4개 분야로 구성했으며 정책자문, 정책제안, 현안연구 등 실무 중심으로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광산구 수완동, 주민자치회 주민설명회

13일 광주 광산구 수완동 주민자치회 준비위원회(위원장 김희종)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자치회 설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민선7기 광산구는 주민 권한 강화, 주민자치조직 활성화 등을 위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미 주민자치회가 조직된 운남·우산·첨단2동에 이어 올해는 수완·어룡동으로 2021년까지 전체 동으로 이 주민자치조직을 확산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로 삼겠다는 방침. 수완동은 2월 주민 공개모집으로 주민자치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워크숍에 이어 이날 주민설명회를 실시했다.

수완동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인원은 20~50명 선으로 접수기간은 이달 14~29일이다. 다음달 4~6일 수완동은 주민자치교육을 실시한다.

임형택 기자

광주시-중흥건설 '세계수영대회 건설부문 후원협약'

선수촌내 체력단련실 등 부대시설 설치 지원



광주시와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중흥건설은 14일 오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이용섭 광주시장과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 조영택 조직위 사무총장, 김성의 남도일보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건설부문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지역 중흥 건설업체인 중흥건설이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건설부문 공식 후원사로 참여한다.

광주시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중흥건설은 14일 오전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건설부문 공식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용섭 광주시장과 조영택 조직위원회 사무총

장,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 김성의 남도일보 사장 등이 참석해 광주 세계수영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중흥건설은 대회운영에 필수적인 선수촌 내 체력단련실과 미용실, 식당 등 부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중흥건설은 광주수영대회 마크와 국내 스폰서 명칭 사용, 경기장 내 광고 등 중흥건설의 이퍼트 브

랜드 홍보권리도 부여받는다.

이용섭 시장은 “중흥건설은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와 광주세계수영대회 유치 등 지역발전 위해 헌신적으로 지원해 왔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광주수영대회가 역대 대회 중 가장 성공한 대회가 되고 광주가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은 “광주형 일자리 성공에 이어 광주수영대회 개최로 광주가 국제적 위상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흥건설도 이번 수영대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중흥건설이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재건축하고 있는 선수촌 아파트는 이달 중 완공 예정이며 2개 월여 동안 각종 편의시설 등 부대공사를 마친 뒤 6월5일 미디어구역 일부 오피스를 거쳐 7월5일 공식 개촌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시와 조직위는 현재까지 중흥건설을 비롯해 광주은행, KT통신 등 13개 업체와 후원계약을 체결했다.

서은홍 기자

전남, 6년만에 구제역

AI 비발생 원년 '눈앞'

전남도는 올 겨울철 2013년 이후 6년만에 구제역과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 비발생 원년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전남도는 그동안 시군 방역공직자와 축산농가 구제역과 AI를 막아보자는 높은 사기와 공감대를 가지고 힘있는 방역활동을 펼쳤다.

전남도는 국내 육지부 유입 구제역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집중 최초 백신비용 100% 보조지원 및 소규모·영세농가 집중 지원 ▲월말 경기와 충북에서 구제역 발생하자 즉시 소와 돼지 집 두수 긴급점검 종료 ▲경기와 충북 충남 위험지역 가축 반입 제한 ▲도내 가축시장 15개소 일시 폐쇄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 ▲거점 소독시설 전 시군 확대 ▲발생상황 및 차단방역 요령 매일 9000호 문자 발송 ▲소독차량 160대 동원 매일 농장 및 밀집지역 소독 등 새로운 차단방역 조치를 도입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차단방역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과거와는 비교가 안 되게 지난해 10월부터 23억 원의 방역예산을 지원했다.

김정환 기자

한정승인공고

사건번호: 광주가정법원 2019년 247 상속한정승인
사망자: 김현호(650923-1055512)
최후주소: 광주 북구 군왕로207번길 20, 101동 406호 (각화동, 주공아파트)

위 망 김현호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 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19년 3월 15일

공고인: 김지수
주소: 광주 북구 문산로 61, 103동 212호(문흥동, 라인아파트)
한정승인수리일: 2019년 3월 12일
공고기간: 2019. 3. 15~ 2019. 5. 15

고객 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을석 세무회계사무소

- 법인 설립
- 임대상속중여
- 기업진단
- 기장대리
- 건설면허신청
- 외부감사

광주시 서구 매월동 948 산업용재유통센터 30동 217호(풍암지구)
TEL: 062-603-1060 FAX: 062-603-1062
H-P: 011-641-6152



월드노무법인

World Labour Corporation

- ▶ 노동법 기업컨설팅 ▶ 산재업무대리
- ▶ 급여체계 정비사 ▶ 징계(해고)자문
- ▶ 4대보험 무료대행 ▶ 노동부 지원금

노동부 으뜸즈만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광주·목포 노동청 전문위원

대표/공인노무사 박정태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04 밀알신협 5층

Tel : 062)512-0336 H·P : 010-3624-0338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세상의 뉴스를 아낌없이...

湖南新聞이 지역공감·미래창조·정통직필의 나무를 키우겠습니다.

• 구독신청·광고문의: 062-224-5800

• 기사제보·독자투고

e-mail: ihonam@naver.com
F a x : 062-222-5548
홈페이지: www.ihonam.com

